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협력소장

6월

유재석의 육계사양관리 핵심포인트

예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6~7월 달의 가장 큰 복병이다. 폭염은 외부온도가 30℃ 이상 되어 30일령 전후의 육계사육시 개방계사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폭우는 국지적이며 한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6월과 7월은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법을 알아보고 한가지 요즘 지역마다 농장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계분 재활용에 대한 성적불량의 대책을 점검해 보자.

1. 무더위

여름철엔 입추 당일 병아리가 농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오전 9시 이전에는 농장에 병아리 수송차량이 도착할 수 있도록 부화장도 입란시간을 조정해 병아리 발생시간을 당겨야 하고 농장도 입추준비를 입추전날 완벽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병아리가 수송도중 무더위에 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첫 물을 신속히 먹도록 하여 충어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겨울에는 낮 2시 정도에 농장에 도착시키고 여름철에는 오전 9시 이전에 분양이 끝나도록 부화장과 농장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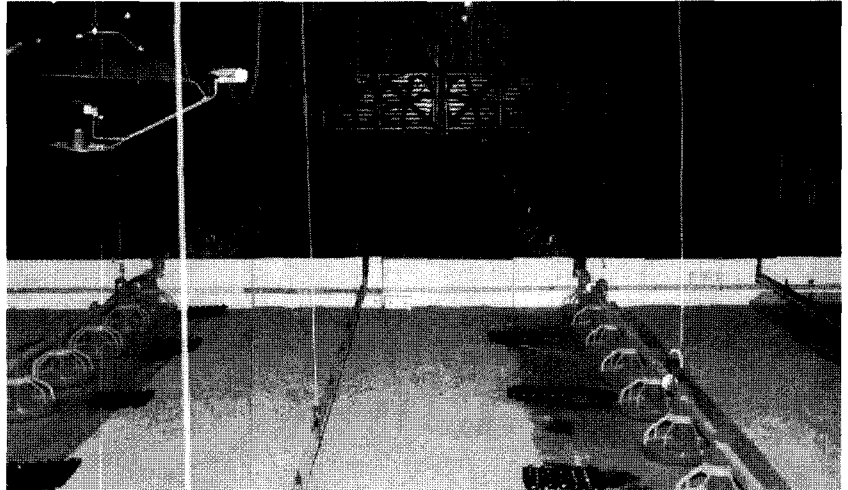
분양농장이 결정되면 부화장 담당자나 수송기사는 분양 하루 전에 농장과 유선 통화하여 입추준비 상태와 농장위치 등을 확인하고 농장위치와 병아리 도착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 초기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병아리 분양시간과 농장의 입추준비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추실 크기는 가급적 넓게 하고(평당 120수 내외) 첫 물과 첫 사료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낱플 급수기나 一자 급수기, 중형 급수기를 사용하더라도 100수당 1개씩 난좌를 추가로 사용(그림 1)하고 병아리 물통이 있는 농장은 병아리 물통도 사용해서 병아리를 박스에서 풀어냈을 때 쉽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3일간 해줘야 한다.

사료도 급이기 통으로 초기사료(입 붙이기)를 공급하고 바닥에는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그 위에 2~3일간 초기사료를 공급해 준다. 이때 병아리가 약하거나 초산 병아리가

입추된다면 2~3일간 물에 갇힌 사료를 바닥에 골고루 뿌려준다.

여름철에는 습도에 대한 문제는 겨울보다는 작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건조한 계사내 환경이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공중에 분무소독을 실시하거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건조 하지 않도록 환경을 유지해줘야 호흡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1〉 병아리가 첫 물과 첫 사료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100수당 난좌 1개를 놔준다.

20일령 넘어서면서 더위스트레스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가급적 수원(水源)에서 직수로 연결하여 시원한 물을 닭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계사밖에 물통이 있다면 물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물통 단열에 신경써야 한다.

심하게 더울 경우는 물통에 얼음덩어리를 넣어주거나 소금물을 일정비율로 혼합해서 투여한다. 또한 비타민C제제는 더위에 효과적이므로 미리 준비했다가 물에 타 주는 것도 좋다.

개방계사는 계사 중간 중간에 환을 세워서 바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며 너무 더울 때는 사료를 오전 10시경까지만 공급하고 한낮에는 절식을 시켰다가 오전 6시경부터 사료를 주는 것도 더위 스트레스를 줄이는 긴급 처방이다.

여름철에 닭의 사료 섭취량이 제일 많은 시기는 밤 9시~11시까지, 새벽엔 4시부터 6시경이다. 단열이 부족한 개방계사에서는 바람의 흐름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지붕에 약간 띄워서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겨울에는 차광막을 철거해서 폭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출하시는 낮 작업을 피하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새벽작업이나 12시경에 작업하고 상차반원들의 긴장 속에서 열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잠자지 말고 출하시간에 일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장마(폭우)

3~4년 전부터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짧은 시간에 좁은 장소에서 많은 비가 온다는 것이다.

특히 양계장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신축계사가 대부분 산밭이나 하천가 등 비 피해가 심한 위치에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비가 오고 햇빛이 내리쬐면 개방계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계사를 비우면 안되겠고 장마철에는 전기누전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무창계사에서는 정전이나 누전이 났을 때 환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므로 정전이나 누전에 대비하여 추가 구비되어 있는 발전기 작동유무를 평소에 실전처럼 연습해 봐야 한다.

계사의 형태와 상관없이 계사주위에 배수로를 깊게 파고 하수구는 막힘이 없는지 물이 잘 빠질 수 있는지 점검해본다.

야간에 대비해서 후레쉬를 동별로 2~3개씩 구비



〈그림 2〉 어쩔 수 없이 계분을 재활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깔짚을 두껍게 깔아야 한다.

한다. 동별로 소화기도 30m에 한 개씩 벽에 걸어놓는다.

무창계사는 비가 올 때 과습의 염려가 있으니 뿔을 작동시켜 습을 어느 정도는 배출시키는 것이 좋다.

3. 계분 재활용의 문제점

필자가 관리하는 농장의 30% 정도는 요즘 계분을 치우기가 어렵다고 매우 힘들어한다.

문제는 계분 치우기가 어렵다보니 충분한 발효가 안된 상태에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장들이 계분을 안 치워도 닭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 닭에게 영향이 없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분을 치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재사용하는 것 뿐이지 닭에게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다 보니 여름철에는 특히 문을 열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입추후 일주일만 지나면 호흡기가 발생하고 눈이 붓는 계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계분을 재사용하는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몇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깔짚을 두껍게 깔아야 한다. 그리고 출하시에 혈액을 채취하여 검역소에 의뢰하여 소독약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 후 소독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입추당일부터 정상적인 환기를 해줘야 한다. 또한 생균제나 유산균제를 사용하여 암모니아 가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아리 때나 커서나 충분한 습도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계분을 재사용하는 농장은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호흡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습도유지에 실패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발생하고 사육을 실패하게 된다. 원칙은 계분을 치우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소독도 2배로 하고 습도에 특히 유념해서 유지해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겠다.

병아리 크레임 발생은 대부분 계분 재사용 농장에서 나타나고 병아리나 사료에 대한 불만이 높은 농장이 대체로 계분 재활용농장이 많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7월에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상황들을 알아봤는데 육계시제도 안 좋고 병아리값도 생산비 이하에 형성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올 여름 생산성 향상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육계인 모두의 건승을 빈다. 올 여름에는 우리 육계인부터 닭고기를 많이 먹읍시다!!!C